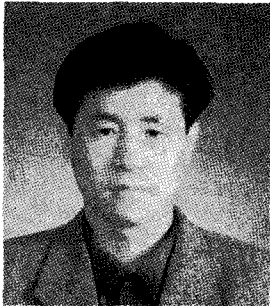


고급육 생산만이 고정 소비층을 얻게 될 것이다



김재홍
농민저널 기자

육우농가에 처한 어려움을 개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시점까지 이르렀다. 정부, 축산농가, 단체 등 축산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조여오는 완전 수입개방의 매듭을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이다.

쇠고기 수입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쇠고기 소비율의 49.7%를 차지해 육우농가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게다가 2001년 수입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어 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한우를 개량하는 것이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가격경쟁에서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대단위 육우사업을 펼치는 나라와는 경쟁이 상당히 어려운게 현실이다.

다행히 우리 국민의 식생활이 선진국 수준까지 향상되어 고기의 소비품종이 양에서 질위주로 변하고 있어 맛과 품질이 우수한 한우고기 소비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고기유통 또한 생축거래에서 도체(지육) 및 부분육 거래로 바뀌며, 생산자는 품질이 좋은 가축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원하는 부위의 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등급별 판매제도를 전면 실시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품질차별화에 의한 한우경쟁력제고 노력은 일정수준의 고정소비층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고 가격과는 무관하게 고급육생산만을 내세워서도 안된다. 축협이 91년 설정한 한우개량지표를 93년 보완하면서 출하일령을 18개월(4백50kg)에서 24개월(6백kg)로 조정한 것은 고급육생산에 중요성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증체율이 극대화되는 시점을 15개월 이내로 판단하여 소를 도축하고 있

다. 미국의 경우처럼 15개월이 증체율 극대화 시기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24개월은 가격면에서 본다면 증체율이 떨어지는 9개월동안 사료를 계속 급여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고기의 고급화도 좋지만 육우농가의 소득 증대도 관련지어 좀 더 연구해야 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 및 사료업체가 긴장하고 있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축산농가라 하겠다. 최근 사료값이 11% 이상 인상돼 생산비도 안된다며 근심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소를 키우는 영세농가는 대책마련이 막대한 실정이다.

국제곡물가의 폭등 원인은 밀과 옥수수 수출시장의 30~50%를 각각 차지하던 미국 중서부 곡창지대가 기상재해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3대 식량대국이던 중국이 식량공급 압박으로 옥수수를 수입, 미국이 유일하게 세계를 먹여살리는 식량 강국으로 부상한 상태에서 이런 결과는 볼보듯 뻔한 일이다.

4월말 현재 밀, 옥수수, 콩의 국내업체 재고량을 살펴보면 밀과 콩이 2.5개월분, 옥수수는 4개월분이다. 또한 이들의 국내 자급도는 5월 1일 현재 밀 1%, 옥수수 5%, 콩 36%이다. 계속해서 국제 곡물가격이 앙등한다면 사료가격이 또다시 인상될 전망이다. 라면, 빵등 수입곡물과 직결된 식품가격도 덩달아 인상되어 결국, 물가 불안을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부는 사료원료가격 계속 폭등시 물량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및 해외 농장을 개방하여 수확량을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태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한우 목표기준 가격을 큰소 5백kg기준 3백만원대로 제시하였으며 매년 하향 안정시켜 쇠고기 시장이 완전개방되는 2001년까지 큰소값을 2백만원대 수준까지 연착륙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국제 가격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국내소값 수준에서는 한우농가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여 장기적인 한우농가 보호측면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부의 96~98년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안)

에 따르면 31조 7백억원 가운데 축산부문에 지원되는 자금은 1조7천5백 76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92년~95년까지 농어촌에 지원된 20조1백33억원중 축산업 부문에 투자된 3조1천2백71억원 보다 금액기준 43%, 투지비중기준 10% 정도가 줄어든 수준이다. 농어촌 부문 12개 투자 항목중 대다수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은 늘거나 소폭 줄어든 반면 축산부문은 대폭 축소될 계획이라 축산업계의 사기저하 및 그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육우산업이 절망적이지 만은 않다. 축협 중앙회가 지난해 연말 두달동안 고객 1천4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소비자 가운데 10명중 7명은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이후에도 계속 한우고기를 구입하겠다고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설문조사에서 한우고기는 가족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 구매(81%), 반면 수입쇠고기는 소풍 등 야외용으로 구매(29%), 가족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32%)로 각각 조사됐다. 그러나 한우고기만을 놓고 볼 때 값이 품질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6.5%가 「매우 비싸다」 또는 「비싸다」고 응답해 한우의 품질을 개선하면 수입개방 이후에도 맛과 가격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분석돼 육우사업을 밝게 하였다.

고급육생산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료 원료 수입의존도가 높다.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해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 의존도가 높고 종류도 다양하다. 한우의 생산비를 줄이고 수입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육기호에 맞는 자급사료의 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육우농가에 처한 어려움을 개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시점까지 이르렀다. 정부, 축산농가, 단체 등 축산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조여오는 완전 수입개방의 매듭을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이다.

